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이 봄에 떠나고 싶다

외국 여행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내 여행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여행의 방법과 질의 변화다. 특히 음식을 찾는, 이른바 미식 여행의 붐이 일어났다. 나는 이런 국내 '맛 여행'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어서인지, 친구들이 특 하면 전화를 건다. 어디 어디에 출장 가는데, 딱 한 그릇을 먹고 온다면 무얼 추천하겠느냐는 내용부터 제 주 3박4일짜리 여행의 '맛 루트'까지 짜 달라는 이도 있다. 얼마나 국내 맛집에 관심과 열정이 높아졌는지, 예전에 내가 '발골'했다고 생각하던 집이 그새 유명해져서 길게 줄이 서거나 '맛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에 등장했었다. 여성지의 바캉스 부록에 따르면 맛집 소개 책이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던 때도 80년대다. 그런 시작은 이제 인터넷 블로그를 지나 에스엔에스가 담당하고 있다. 여러 매체가 같이 이런 미식을 끌고 가는 게 맞겠지만.

코로나가 위중해져서 지역의 맛있는 식당을 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저 짬뽕 먹여준다. 부산의 중앙동이나 광복동 같은 옛 거리에는 고등어가 지금 너무도 맛있을 때인데 못 간다. 기름이 자르르 올라 구워도 좋고, 누렇게 매콤하게 지져도 내는 고등어를 못 먹다니! 또 부산에 가서 회백반 안 먹고 오면 서운하다. 명성회집에서는 값이 헐해도 너무 헐한 회백반이 짐을 돋운다. 이 집의 겨울 메뉴는 어복백반이다. 이것은 근대의 흔재된 역사의 맛이 아니고 무엇일까 싶다.

은갖 백반집들이 지역에서 번성하지만, 그래도 대원 식당을 비롯한 순천의 한식집 두어 군데는 역사 있고 격조가 있는 밥상을 내는데, 역시 언감생심가 불 입దు를 못 낸다. 고흥에 가서 기름이 오른 노랑가오리회도 먹고 싶고, 익산의 회관거리 영빈회관에서 한때 번성하던 화려한 이리의 질백한 밥상도 만나고 싶다. 아, 익산은 이름도 특별한 백여사 식당에 가야 하는데..

가까운 전주는 또 어떤가. 전주는 물이 좋고 풍이 좋아서 풍나물국밥이 맛있다. 맛있다 보니 군데는 역사도 시 전체가 이 국밥집들끼리 전투를 치른다. 마치 부산에서 돼지국밥집들이 그러하듯이. 웅이집·삼백집 같은 전설들 사이에 신중 강호도 뚝다. 미가옥이라는 집이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 생긴다는 풍나물국밥의 격전지. 내일 또 어떤 집이 뜰지 기대된다.

전주에 전설적인 화교 중국집 흥풍반점은 사라졌다

지만, 일품향의 만두는 견재하다고 들었다. 만두 하나까 생각하는데 대구 태산만두의 화교 솜씨 쯤만두는 또 얼마나 최고였던가. 대구가 은근히 맛이 있는데 통닭과 떡볶이, 칼국수 같은 집들이 젊은이들에게 회자된다. 하나, 나는 종로(서울의 종로와 같은 이름이다)의 오랜 화상 중국집을 간다. 대구만의 야키우동(실은 북은 짬뽕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르다)을 한 그릇 하고, 동무들이 있으면 전가복도 먹어야 하는데.

강원도로 올라가면 강릉의 해성회집에 가서 삼식이 매운탕으로 얼음하게 속을 대우른다. 회가 없는 회집이라니. 다시 전라도로. 목포 초원식당은 아저들이 손으로 일일이 발라낸 순살로 만든 계장무침이 일품이고, 한여름 손님 물릴 때를 피해 요즘 가야 제대로 대접 받는다는 민어집들도 두었 으니, 들러서 부레와 고소한 간을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이 또한 혀의 호사다. 나주로 올라가서 나주곱창도 한 그릇 하는데, 나는 이 집들의 수육이 더 좋다. 주로 머릿고기로 내는데 값이 은근하게 싼 고기의 맛이 한우의 진짜 맛이라고 생각한다. 마블링 좋은 구운 고기는 현대의 유행이고, 과거 우리는 삶은 소고기로 한우 맛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국수는 전국의 많은 지역이 다 한 가락 한다. 대구는 특이하게 칼국수집과 잔치국수집이 번성한다. 대전 등 충청도 지역 못지않다. 동국할머니 국수와 이금에 잔치국수를 먹어 보면 왜 대구가 국수를 잘 다루는 도시인지 인정할 것이다. 음식으로 상상의 팔도유람을 다닌다. 이제 봄에는 진짜 가 볼 수 있겠지. 그 기대를 안고 산다. 모두들 기다리자. 힘을 내자.

<음식칼럼니스트>

社說

계나 고등이나 모두 '대선후보 특보'인가

대선이 초박빙 접전 구도로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특보 등의 임명장을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상대 정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및 선대위 관계자들에게까지 임명장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모 의원과 당원 7~8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바일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모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측이 발송한 '광양시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남발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태명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달 27일 과거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내고 총선까지 출마한 바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고문을 맡고 있는 이에게 디지털전환특보 임명장을 모바일로 보내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또 다

른 당원 한 명도 민주당 특보 모바일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를 제보받아 조사하고 있다.

선거 막판 지지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캠프의 각종 위원회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들의 공을 앞세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보단을 꾸리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 특보 임명장을 모아 캠프 임명장을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행위는 상대 정당이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름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담은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불법 행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야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선거 때면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당 임원 추천한 '추진단' 허수아비였다니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인사 파행과 관련 재단 설립과 임원 추천의 주체가 돼야 할 설립추진단(추진단)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정한 인사들의 기초자료를 추진단에 제공하고 선임에 동의하게 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의혹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화전당재단으로부터 '창립총회 의사록'(2022년 1월 10일자)을 전달받은 이병훈 의원실 담당자와 추진단에 참여한 위원들 및 문체부 차관을 면담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임원 추천의 실질적 주체인 추진단의 역할은 문체부가 제시한 임원들에 대한 승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전당재단 설립 절차는 추진단이 정관 작성, 정관에 의거한 임원 추천을 하기로 명시돼 있다'는 문체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즉 문체부가 사전에 인사들을 내정함으

로써 임원 선임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추진단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것이다. 실제로 추진단에 참여했던 모 의원은 "창립총회가 열린 지난달 10일 임원진에 대한 간단한 악력만을 제공받았을 뿐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나 심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전의 설립 관련 회의에서도 선임 이사장과 사장 등 임원 추천에 관한 얘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문화전당재단의 임원 선임은 추진단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정관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문체부가 사전에 '추려 놓은' 인사들로 임명을 이끌어 낸 것으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एंटी러' 불통 인사임이 틀림없다. 문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하루속히 문화전당재단 인사들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들 역시 지역사회가 왜 이번 인사에 분노하는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등 현명한 처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기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거는 기대



정찬군
나주시 부시장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오는 3월 빛가람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에 개교한다. 작지만 강한 대학, 에너지공학 단일 학부로 미래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이다.

연면적 5224㎡ 규모인 캠퍼스 건설 공사는 핵심 시설인 내·외부 마감 공사가 공정을 95% 이상을 보이면서 조만간 임시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학생 모집도 수시전형 중 일반전형이 24.1대 1, 고른 기회 전형은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시전형인 수능 우수자 전형의 경우 95.3대 1로 전국 대학중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수진도 국내·외 저명한 교수들로 49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안에 60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캠퍼스 시설, 학생 모집, 교수 충원 등 개교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대사회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로 국가적 과제를 넘어 이미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각광받는 에너지 신산업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기반이 갖춰진 전문 산업단지야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확보가 에너지 신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설립되는 일반 대학이 아닌 에너지특화 대학인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AI,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등 5대 에너지 분야의 중점 연구를 통해 연구 분야별 특화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학원 5개 트랙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톱 10' 에너지공과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청사진은 비단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첫째, 국가와 인류를 위한 미래 에너지, 탄소 시대를 대체할 청정에너지를 연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기술

장벽을 돌파하고 인류 에너지 난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초기 빅5 에너지 특화 연구소를 구축하고 중장기 국가 대형 연구시설과 클러스터 입주 연구기관 간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지평을 여는 연구형 인재와 창업형 인재 양성이야. 기존 국내 대학의 교육 한계를 극복하여 연구 인재와 창업형 인재 양성함으로써 문제해결 학습 기반과 글로벌 인·오픈·양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 공학교육 체계를 도입하여 국내외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을 중심으로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밸리와 동반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로 진화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전력산업 혁신 시대에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으로써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성장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경의 한 구절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료칼럼

낙상과 골절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이 있는 환자는 골절의 상태가 경미한 경우 낙상 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골절은 방사선 검사에서 진단되는 편을 추가하기도 한다. 골절의 진단 후에는 골절의 위치,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대부분 고관절 부위 골절, 즉 대퇴골과 골반골이 이행되는 부위에서 골절이 발생하며, 골절은 단순 선상 골절에서부터 분쇄상 골절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고관절의 모양은 볼 소켓 형태로 이루어져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방향성 관절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 일상적인 활동에도 큰 제약이 가해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고령 환자에서는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하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기 쉽고 심한 경우 폐렴, 욕창 및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대퇴골 체부와 관절이 연결된 이행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발생한 골절은 자연적으로 유합되기 어려워 대부분 골절 고정술이나 인공 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 고령 환자는 평생 건강했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과적 질환으로 수술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술 전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여러 분야 전문의와 협진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겨울철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는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낙상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굽이 높지 않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충분한 체력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늘진 곳에는 빙판이 있을 수 있어 보행 시 주의하도록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도록 한다. 고령의 경우 필요시 지팡이나 위커를 이용해서 보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환경 및 생활 습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본인의 골밀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1~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게 좋으며, 여성은 폐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가 있어 폐경 이후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검사 시행 후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거나 과거 손목이나 고관절 골절과 같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했던 사람은 적절한 처방을 받아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無等鼓

한때 매년 새해가 되면, 묵판화 작가가 이철수의 작품으로 이뤄진 달력을 구입했었다. 소박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구성된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저절로 흐릿한 미소가 지어지곤 했다.

지금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 전(오는 28일까지)에서 이 작가를 만났다. 그를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작품과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었다. 충북 제천에서 농사짓고 평화 작업을 하는 그는 '멋지게 늙으신 호박옹'에 혹은 '발레 먹은 머무나 무'에 눈길을 주는 따듯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철수와 강행복

평생 누군가를 앉혔을 의자에, 젊은 사람 모두 떠난 시골 어느 집의 낡은 문턱에도 마음을 주는 그였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그 '마음'을 담으려는 듯 천천히 작품을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곤 했다. 또 다른 소박한 묵판화 작가 한 분이 있다. 몇몇 행년 70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강행복 작가다. 그를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선한 미소'다. 전시회나 찾집에서 마주칠 때,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건넸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안

부를 묻거나 작품을 설명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언젠가 글을 쓰기 위해 오래된 선술집 '영흥식당'을 찾았을 때, 좋은 이들과 술잔을 나누던 그의 모습도 떠오른다.

신문의 부고 기사를 봤다며 전화를 걸어 온 최영호 화백은 '지역 작가들 중 가장 선한 사람이 강행복'이라며 그의 떠남을 아쉬워했다. 경기도 김포 출신으로 흥익대를 졸업한 강 작가는 1987년 광주로 내려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국의 사찰을 찾다니며 탐·연꽃·불상 등을 목

판에 새기는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설치와 비구상으로써 영역을 확장하며 실험을 이어갔다. 지난해부터 신병 치료를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도 작업을 계속한 그는 며칠 전만 해도 서울 전시에 참여했다.

'선' (禪) 적 느낌이 강한 그의 작품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 준다. 비록 그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의 작품만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남아 그를 대신할 터이다. 인고의 세월 속에서 탄생했을 그의 작품을 통해 그를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마련됐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